

# 시골지역 책문화의 이 안쓰러운 殘光

## 근근히 명맥 이어가는 전북 정주시 하흑새마을문고

정주 시내를 벗어나 고창가는 국도를 따라 2km 남짓 가다보면 야트막한 산중턱에 우뚝 하니 숲은 '정읍아산중합병원'이 보이고 그 병원 뒤로 소담한 마을이 엮여있다. 행정구역 상으로는 정주시 정일동으로 불리지만 사람들에게는 '검은바우마을'의 아래뜸으로 잘 알려진 하흑마을.

추수를 기다리는 벼논과 길옆에 핀 들꽃들에 눈을 팔며 택시 두대가 어쩔사리 비껴갈 만큼의 넓이로 반듯하게 포장된 신작로를 걸어가면 태양초라든가, 선홍빛 고추가 가을 햇살에 몸을 말리고 있는 널찍한 공터가 있고 그 주위를 둘러가며 경로당, 새마을 유아원, 쪽빛 지붕을 인 대청마루 등이 보기 좋게 서 있다. 그리고 한켠으로 둥근 통나무 서까래에 슬레이트를 얹고 벽돌로 담을 쌓은 뒤 회칠을 한 낡은 건물이 눈에 띄는데, 이 건물이 올해 '우수마을문고상'을 수상한 하흑새마을문고가 들어 있는 곳이다.

출판협회가 지난 79년에 제정하여 올해로 13년째 되는 이 상은 '지역사회 독서풍토 조성 및 국민의식수준향상에 공헌한 마을문고'에 주어지는 것으로, 상을 받아온 하흑마을 문고의 박석규 회장(57)은 그 소감을 이렇게 밝힌다.

"상을 받기는 했지만 실제로 현재는 거의



하흑 새마을문고 문학전집 위인전기 등 8백여권의 장서를 갖추고 있다.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부끄럽습니다. 단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직 폐쇄시키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는 의의를 인정한 것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흑새마을문고가 설치된 것은 지난 72년경. 새마을지도자 등의 활동을 통해 마을가꾸기에 남달리 열심을 지니고 있던 박씨가 자신의 집에 있던 책과 여기저기서 끌어모은 책 1백여권을 마을회관 한 귀퉁이에 갖다두면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마을회관에서 더부살이를 하며 기초를 다져가던 이 '문고 아닌 문고'는 81년 '하흑 새마을문고'라는 명칭으로 정식 설

립되었는데 새마을문고 중앙회에서 지원하는 기본도서 2백권과 각처에서 얻고 보내온 책들을 모아 한때 장서가 2천권이 넘고, 마을문고 문턱을 넘나드는 발길이 잦았던 '성황'을 누리기도 했다고.

그러나 현재는 대부분이 학생인 60여명의 회원과, 8백여권의 책만 남아 있는데 그나마 대출 후 반납이 되지 않아 현재는 표지가 떨어져 나간 소설책, 개정 맞춤법과 무관한 위인전집과 동화책, 이미 발행이 중단된 잡지들, 60년대 4H에서 이미 발행한 농업서적들만이 서가에 등성등성 꽂혀있는 것이 이 마을문고의 실정이다.

"농촌에서 실질적인 독서층은 학생이나 청년인데 그들이 자꾸 외지로 빠져나가니 자연 독서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책에 대한 올바른 정보나 지식을 갖춘 사람이 없고, 좋은 책, 새로운 책을 구입할만한 재정도 없으니 농촌의 마을문고들이 유명무실해지는 것이지요"

농촌 마을문고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박씨의 이같은 고백은 '국민대중에게 평생을 통한 계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 아래 지난 61년 전국의 농어촌, 소도시, 공장 등에 설치했던 17,828개의 새마을문고 중 현재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1,105개에 지나지 않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마을문고를 찾는 사람이 10명 뿐이더라도 마을문고는 운영할 것입니다. 특별한 문화시설이 없는 농촌에서 자라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인성교육 및 정서교육에 있어 독서만큼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용 교육도서와 농업관련 서적 그리고 새로 나온 아동도서들이 농촌 마을문고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책이라고 말하는 그는 94년까지 새건물을 지어 현재 낡고 음습한 문고를 옮겨 보다 좋은 독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인근마을의 독서인구까지도 광범위하게 포괄할 수 있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해나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박남정 기자

## 현장에서 정립한 판소리작가론

### 전북 군산의 판소리연구가 최동현교수

"춘향의 고향인 남원, 해마다 최고수준의 국악경연이 벌어지는 전주와 있고, 일상적으로 쓰는 사투리가 그대로 판소리의 언어로 재현되는 데서 오는 친화력 때문인지 이곳에는 아직도 판소리를 즐기고 아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고을마다 명창, 명고수가 한두명 있는 것은 물론이고 웬만한 시·읍이면 국악원과 동호인 모임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지요"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백학기, 이병천, 김용택 등과 함께 '南民詩' 동인으로 詩業에 열중한 최동현 교수(군산수산전문대·37)는 자신이 문득 판소리에 관심을 갖게 되고 전공까지 바꿔버리게 된 계기 중의 하나는 전라북도

가 지니는 이러한 분위기에 있었다고 말한다.

그가 판소리를 처음 접한 것은 전북대 재학 시절. 이기우·천이두 교수가 매달 개최하던 판소리 감상회에서 박동진 명창의 '홍부기'를 들었을 때. 이후로 호기심이 반을 넘는 관심으로 소리판을 기웃거리다가 소리도 배우고 북도 배워 "제법 장단이라도 맞출 줄 알게" 되면서 판소리의 깊은 맛과 멋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마치 입담 좋은 소리꾼처럼 그가 풀어놓는 이야기이다.

그 과정에서 전공을 판소리 연구로 바꾸어 버린 그의 학문적 관심의 방향은 최근 '판소리 연구'(문학아카데미)라는 책으로 묶여져 나온



최동현교수.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잘 드러난다.

"지금까지의 문학과 음악을 별개로 분리시켜 연구하는 방법으로는 판소리의 총체적 면모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고 주장하는 그는 3백년 이상 전승되어온 판소리의 예술성과 그

미학의 기준을 객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가 2년여에 걸쳐 전북의 문화정보지 「문화저널」에 연재하고 있는 '판소리 명창론'은 이러한 그의 관심과 깨를 같이하는 것으로 종래의 전기 위주의 명창론에서 탈피, 각 명창들의 소리가 지니는 특성과 미학을 분석한 이른바 판소리 작가론의 시도라 볼 수 있다.

판소리를 보는 그의 새로운 시각 때문인지, 그가 지닌 각별한 애정 때문인지 그에게는 맡겨지는 일이 많다. 오래된 판소리 음반의 복각과 생존 명창들의 레코딩 및 해설, 방송 프로그램 제작, 그리고 「소리와 장단」 「민족음악회보」와 같은 각종 회지발간 등 실제로 전북에서 행해지는 판소리 관련 프로그램에 그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다.

"나는 일복이 많은 사람인가 봅니다."

때로는 번잡스럽기도 할 일들을 '복'으로 여기는 그는 판소리 문화의 건강한 현장인 전북지역의 큰 일꾼임에 틀림없다.